

찬양 : 면류관 벗어서 (25장), 호산나 호산나(141장)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셨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과 전쟁을 통해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평강을 누린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눅 9:9)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마 11:29)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성품을 닮고 싶으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